

[데살로니가전서를 읽기 전에] 행 17:1-15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던 기록이 있다.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역지로 쫓겨났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긍급하여 곁될 수 없었다. 다시 만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견하고 자신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행 18:5-10) 디모데 편에 전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에 대해서 쓴 편지이다. 반드시 사도행전의 이 부분을 먼저 공부한 다음 읽기 바란다.

데살로니가전서 1 장

1. 바울의 눈에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종이나 출신 지역이나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라는 점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2. 데살로니가전서를 쓴 곳, 즉 바울과 실루아노(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있던 곳이 어디일까?(참고, 행 17:1-18:11) 아마도 여기서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했음이 틀림없다.
고린도(행 18:1, 5) 2차 전도 여행 중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이 일어나 떠남(아마도 바울만 떠나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해서 타협을 했을지도 모른다) 디모데가 남아서 계속 사역할, 바울이 베뢰아, 아텐을 거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할 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황을 전해 주어서 편지를 쓰게 되었다.
3. 우리나라 사람들은 편지의 서두에 주로 복을 빈다. 예전에는 만나면 안경을 묻는 것과 식사의 여부를 묻는 것이 인사였다. 바울은 주로 무엇을 빌었는가?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형편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평강이 있기를 빌었다. 밤새 별고 없고 먹는 것이라도 잘 행기고 있는지를 묻는 것과는 차원이 많이 다르다. 이런 놀라운 인사가 바울에게서 시작되었다.
4.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잊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3) 자식이 귀하다고 다 같은 자식이 아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짓을 쫓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할만한 짓을 한 사람은 복되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는 자답게 살고 있었음을 칭찬하는 말이다. 핍박 가운데서 탄생해서 자신이 쫓겨난 후에도 교회가 잘 자라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귀한 성도들이었다(2) 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본문들은 다음과 같다. 살전 5:8, 롬 5:1-5, 고전 13:13, 갈 5:5-6, 골 1:4-5, 히 6:10-12, 10:22-24, 뵤전 1:21-22.
5. 소망이나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냥 덮어놓고 '꿈을 가져라'고 하기보다는 구체적이라면 더욱 좋다. 성도들은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뒤에 보면 재림에 대한 소망이다. 아직은 교회가 조직적이거나 체계적이지 않은 때이다. 그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하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던 때이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단순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회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6.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아는가?
복음이 그들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아서(5) 말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 그들 가운데서 나타날 만큼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시기를 여기서 말하지 않아도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것은(엡 1:4) 다 알고 있는 얘기다.
7. '능력'과 '성령'과 '확신'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능력과 확신은 성령의 역사하신 결과이면서 능력은 외적인 현상이고 확신은 내적인 현상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은 능력의 출처이고, 확신의 근거이다.
8.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안다'(56)는 것은 무슨 뜻인가? 3:5절을 참고해서 생각해 보자.
누구에게도 자신 있을 만큼 좋은 본을 보였다는 말이다: 은근히 적대자들과 자신을 비교해 보라고 시키는 셈이다.
9. 데살로니가서가 비교적 초기 작품(바울의 2차 전도여행 중에)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그들이 겪은 '많은 환란'이 어떤 일로 인한 환란일까?
개종으로 인한 환란(6, 9) 바로 다음의 '도를 받아'란 말도 그것을 증거하는 셈이다. 어디서든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곳에 환란이 없을 수 없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성령의 기쁨'이다(6)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박해와 시련에 맞서는 성도가 맞볼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기쁨이다. 복음은 환란도 시련도 극복할 능력이 있다. 오늘날 교회가 별로 기쁨도 느끼지 못하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모태신앙인으로 가득 찬 탓일까? 아니다, 모태신앙이 원인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도전에 맞서서 용감하게 싸우는 영적인 투사들을 제대로 기르지 않은 탓이다! 신앙교육의 부재 탓이다! 강도나 모습은 달라도 신앙에 대한 도전은 끊이지 않는다.
10.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이 어디인가? 다른 말로 한다면?
 현재의 그리스 반도의 위쪽이 마게도냐(수도=데살로니가)이고 아래쪽이 아가야 지방(수도=고린도)이다. 그리스 전체(全헬라)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전국적

으로 소문이 났다는 말이 된다. 마게도냐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 등이 있고, 아가야에 아덴, 고린도, 겐그레아 등이 있다.

11. 누가 누구의 본이 되었는가?

‘우리와 주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본이 되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 말로만 예수를 믿을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감히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다’고 말하는 것이나 ‘우리’를 ‘주님’과 동일 선상에 놓고 이렇게 말하다니! 그리스도인들, 특히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역자들은 이 정도의 말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모범된 삶을 살아야 한다.

12. 8절의 ‘각처’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조금 과장해서 요즈음 흔히 쓰는 표현으로 바꾼다면?

온 세상에.

13.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속된 표현으로 하면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할 말이 없다면 개점 휴업인가, 폐업인가?

‘영업지역 확대’, ‘대리점 확충’인 셈이다: 8절의 ‘들릴’과 ‘퍼지므로’에 주목해야 한다(‘들릴’이란 단어의 의미가 ‘울려 퍼진다’는 뜻). 자신들이 할 말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 해버렸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소리가 공명이 되어서 저절로 전달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발생한 소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공명이 되어 울리고 마침내 온 세상에도 퍼져나갔으니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뜻이다(혹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칭찬의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일을 다 해버렸다는 놀라운 칭찬이다.

14. 9절의 ‘저희’는 누구인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사람들

15. 각처에 퍼진 소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4가지)?

- 1)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 비방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실.
- 2) 복음을 받아들인 것: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개종
- 3)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 4)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16. 10절은 예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1) 부활하신, 2) 하나님의 아들로써, 3) 장차 재림하실, 4) 구원자

17. 8-10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녹아 있는지 생각해 보자.

8절: 믿음의 소문,

9절: 하나님에 대한 사랑,

10절: 재림에 대한 소망: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데살로니가전서 2 장

1. '동무'라는 아름다운 우리말이 거의 자취를 감춘 것 같다. 어깨동무 같은 복합어이나 남아있는 정도이다. 대신에 한자어인 '친구'가 더 널리 쓰인다. 공산주의자들이 '동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 피를 빨아먹는 지주들과 대항하여 싸우던 민초들에게는 대단한 매력 아니었을까? 평등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을 테니까. 이런 공산주의가 인간의 힘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했지만 이상은 무척 높게 잡은 셈이다. 그러나 이런 이상도 그들의 창조물이 아니라 흥내를 낸 것이다. 누구의 흥내를 내었는가?

바울: 엄연한 계급 사회였던 고대에 자신이 복음을 전한 이방인 성도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른 것(1:4, 2:1, 9, 17)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을런지 생각해 보라. 우리나라에서도 양반 상놈의 구분이 확연하던 때에 예수 믿은 머슴이나 종을 가리켜 'OO 선생'이라고 부르고 같은 상에서 밥을 먹게 한 것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가!

2. 바울이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욕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가리키는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귀신들려 잡치는 여종을 고쳤다가 매 맞고 옥에 갇혔는데 찬송과 기도 소리에 옥문이 열렸던 그 사건이다(행 16:16-40). 아마도 대적자들은 이 사건의 전말을 호도하여 바울을 전과자로 취급했을지도 모른다. 그 일 후에 이들이 다다른 곳이 데살로니가인데 빌립보와 같은 지방에 있었으므로 성도들도 이 일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3.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 것과 같다.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였는가?

싸움: 이 단어의 어원이 '경기'에서 나왔다. 전도는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다. 다만, 치고 박고 싸울 것인지 아니면 사랑으로 녹여버릴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

4.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면 뭘텐데... 바울은 전도라는 말 대신 어떤 말을 쓰는가?

권면(3): 전도라고 하면 전혀 모르는 사실을 전해준다는 의미가 강한데 권면은 잘 하고 있지만 옆에서 조금 도와준다는 듯한 어감을 준다. 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지혜롭다. 4절에도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부탁을 받았다(원어상으로는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셨다는 뜻)고 한다. 바울의 표현이 조소스럽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초신자들이니까!

5. 권면을 시작하면서 빌립보에서 받은 고난과 능욕을 먼저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일이 사리사욕(간사, 부정, 꾀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런 일에 열심을 낸다는 것을 강조하려 함이다. 사리사욕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이렇게 고생스러운 짓을 왜 하겠느냐? 그러니 아첨이나 탐심의 말을 하지 않는다. 로마 제국 안에는 이곳저곳을 떠도는 순회 철학자들이 많았단다. 돈과 명예를 위하여 사람들의 인기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바울을 이런 부류의 하나로 공격한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6. 아첨의 말과 탐심의 말(5)이 어떻게 다른가?

아첨의 말은 상대방을 좋게 말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고 탐심의 말(가면)은 자신의 일정한 의도를 감춤으로써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다. 전자는 외적인 행위가 강조된 반면에 후자는 내적인 의도가 강조된 표현이다. 바울은 이 두 가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 없는 말을 지어내서 아첨하지도 않았고, 불순한 의도를 숨긴 채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한 적도 없다. 그럴 생각이었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생스러운 일을 했겠는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일이다(4).

7.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라는 말은 난하주에 보면 '뺨를 पि칠 터이나'라고 되어있다. 짐을 지울 수도 있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사도의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했다는 말인가?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7): 유모가 어떻게 자기 자녀를 기르느냐? 그러니까 여기 유모는 실제로는 어머니인 셈이다. 양육한다는 점에서는 어머니지만 잘 양육해도 자기 자녀가 아니란 점에서는 유모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애매한 표현을 쓴 게 아닐까?

권위가 있으면 저절로 명예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며 잘못이 아니다. 그럼에도 유순(원어상 의미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관대하게 대함)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진정한 권위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스승임을 분명히 알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여기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도 자신과 동일한 사도로 취급하고 있다.

8.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갔다. 그러나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었다(8).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누리기보다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주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이다(8): 물론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반향(에아리)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먼저 베푸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고 체험한 사람은 다른 성도에게 그럴 수 있다.

9.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1차적으로 기억해주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수고와 애쓴 것(9)이 무엇인가?

밤낮으로 일한 것: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바울을 가리켜 사리사욕을 취하려고 했다는 비난에 대한 효과적인 방비책이다.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기억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일단은 개인적인 탐심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하는 말이다.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하기 위해서 목사는 가능한 한 청빈하고 가난해야 한다. 물질에 욕심을 버려야 한다.

바울은 전도자가 생활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말한다(고전9:14). 그러나 그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라도 장애가 될까 싶어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목사는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반면에 교회는 그 권리를 존중해 주면 모양새가 참 좋은데(빌 4:16 처럼)... 이게 거꾸로 되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다.

10. 흔히 우리는 어떻게 말씀대로 다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느냐고 한다.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는가(10)?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런 삶을 가능케 하였는가(12)?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다'고 말한다.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릇된 선입견일 뿐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열심(12)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만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다.

11. 바울은 자신을 어머니에 비유해서 말하더니(7) 여기서는 아버지에 비유하고 있다(11). 무슨 차이가 있는가?

어머니는 젖먹이를 양육하는 듯한 태도를 말하고 아버지는 좀 자란 아이에게 훈육하는 듯한 자세를 말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머니 역할도 하고 아버지 역할도 다 했다. 홀애비(?)가 참 별 일이다!

12.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는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12)?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함(12) =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 = 하나님께 합당한 신부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려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기에 합당한 자녀가 되는 것이 바울의 목표이다. 고후 11:2과 다르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도'

13.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은 말씀은 바울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오늘 우리의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설교말씀은 목사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복이다. 분명히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말을 외치는 자가 적지 않다.

설교자는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한다.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다. 목사 자신의 말과 언어임에도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아무렇게 소리질러 놓고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다(13).

14. 어디서나 개종에는 박해가 따른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동족에게 고통을 받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하는가?

개종한 유대인들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그런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아픔을 겪었다. 그래서 같은 박해를 이겨낸 데살로니가 성도나 유대인 성도는 동일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15.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인가(15-16)?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금한 것이다: 이러면서 자신들과 후손들에게 죄를 물리라고 큰 소리 치더니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고난을 당했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과 일행을 예수와 선지자들과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는다. 자신들이 사도로 인정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들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16. 사도 바울이 형제들을 잠시라도 '떠나게 된 것'의 원어상 의미는 '고아가 된 것'이다. 그 형제들을 향해서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라고' 하는 바울의 심경은 어떤 사람에 비하면 좋을까?

어쩔 수 없이 헤어진 형제, 혹은 잠시 떨어진 연인: 좀 심하지 않은가? 아마도 진심이었을 것이다. 정말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복음을 전해본 사람만이 아는 감정이다.

17. 사도 바울이 형제들을 잠시라도 떠나게 된 것은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이긴 하지만 사실은 야손과 그 나머지 성도들을 염려해서 일단은 바울이 혼자 떠났다(행 17:9-10). 뜰에 맞아 죽었다고 갖다 버려도 이튿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던 바울이(행 14:19-21) 대적자들이 무서워서 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보고 싶어했을까! 그런데 왜 돌아가지 못했는가?

사단의 역사(18): 아마도 유대인들의 박해보다 몸의 질병(고후 12:7)이나 다른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가령, 고린도에서의 바벨 사역).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들도 성령의 역사였다.

18.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께서 강림하실 때 바울에게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되는가? 복음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전서 3 장

1.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라는 표현은 어색하다. '참다 못하여'라는 어구에 어느 말을 연결하면 좋을까?

디모데를 보내노니: '좋게 여겨'라는 표현도 자리를 좀 옮기는 것이 좋겠다. '우리만 아덴에 머물고 디모데를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겨...'처럼.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바울이 남겨두었던 실라와 디모데를 아덴에서 만났다(행 17:13-15). 이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자신은 고린도로 향한다.

아덴은 당시로서는 세계적인 지성의 도시였고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힘든 곳이었고 실제로 열매도 별로 없었다. 동역자들의 도움이 절실한 곳에서 가장 의지할만한 사람을 파송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2. 디모데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꾼(원어상 동역자): 소속은 하나님이고, 임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다. 우리의 동역자라거나 믿을 수 있는 동료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테지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른다. 능력도, 열심도 좀 모자라긴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잊지 말자.

3. 바울이 혼자 안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참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굳게 하고 위로하는 것(3), 잘 믿고 있는지 알고 싶은 마음(5): 디모데를 통해서라도 굳게 하고(2), 요동치 않게(3) 하고 싶다.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11, 2:17)

4.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바랐다고 말하면서 환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덧붙이는가?

예수 믿은 탓에 이런 환난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36, 행 14:22) = 성도는 고난을 당하게 마련이다 = 장차 받을 환난이 있다(4) 그렇게 되리라고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4)는 것이다. 예수 믿고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난을 이겨낼 각오를 다지도록 해야 한다.

5. 시험하는 자란 사울이 데살로니가에 가려고 하는 것을 막은 자이다(2:18). 누구지?

사단: 바울이 뿌린 씨앗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던 자들은 결국은 사단의 하수인이다.

6. 바울은 고린도에서 온갖 궁핍과 환란을 당하고 있는데다 걱정도 태산이다. 혹 시험하는 자가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염려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는데다 유대인들은 악착같이 따라다니며 훼방을 놓고 툭하면 고소를 하기도 했다. 이런 바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디모데가 돌아와서 전해준 소식: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6) = 성도들의 믿음(7) = 주 안에 굳게 섬(8)

7.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8),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9)라는 말을 현대식으로 고쳐보자.

이제야 살겠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본의 아니게 다급하게 떠난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견딜 수 없었다는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8. 주야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은 다시 만나는 것이다. 단순하게 보고 싶은 뜻이 아니다.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는 것(10)이 주목적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가르쳐 줄 게 많다는 뜻이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믿음에 부족함이 있다고? 믿음 위에 지식이 더해져야 한다. 뒤에서 재림과 종말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부분이 특히 부족하다고 느낀 모양이다.

아는 사람은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안달을 하는데 배워야 할 학생은 느긋하다. 그러면 아는 사람만 답답하다. 바울이 얼마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했을까? 결국은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들르게 된다.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안달하면서까지 이들의 소식이 궁금한 것은 급하게 쫓겨나느라고 가르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무리도 못하고 떠났는데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니 얼마나 반가웠겠는가!

9.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기도를 해버렸다. 기도의 요지가 무엇인가?

(주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날에) 흠 없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10. 때때로 그리스도인은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왜 우리만 이래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받기도 한다. 아빠가 집사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이것은 별로 좋은 답이 아니다. 본문에서 좋은 대답을 찾는다면?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니까: 이런 자세를 종말론적 삶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런 대답도 훌륭한 대답이다.

11. 사도 바울의 이런 자신감이 참으로 부럽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이런 사랑이 누구

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도 있기를 바라는가?

주님으로 말미암아(12절 초반의 주께서), 너희에게도: 피차간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에게도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한다. 자신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자신감을 가진 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히 요청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러셨지!

데살로니가전서 4 장

1. 성도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종말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가?
아니다: 여기서 '종말로'라는 말은 '마지막으로'라는 뜻이다. 편지의 마지막이란 뜻이다.
2.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염려스러웠는데 듣자하니 정말 잘 하고 있단다. 그러면 권면할 게 없잖아? 잘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이 본문에 있다면 무엇인가?
더 힘쓰라(1, 10)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잘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10).
3.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다. 어차피 행하지도 못하는 말씀을 더 알면 양심만 더 찢리잖아? 반면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칭찬하는가?
곧 너희 행하는 바라(1)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마땅히 행할 바'였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성도들이 그대로 행하였다고 칭찬하면서 더욱 많이 힘쓰라고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4. 바울이 명령이라고 하면서 전달하는 것은 무엇인가?
거룩하라(4) 음란하지 말라. 색욕을 좇지 말라. 이런 문제로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남편을 범함으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3).
5. 성도의 거룩함은 음란과 색욕에서 떠나는 것이 기본이다. 아내나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던지는 충격적인 선언은 무엇인가?
 아내를(남편을) 저버리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8).
6. 5절과 7절은 같은 내용이다. 그러면 중간의 6절도 여전히 같은 내용인데 오독(誤讀)의 여지가 있다. 같은 내용이 되도록 다음 몇 가지 표현의 의미를 설명해 보자. '분수를 넘는다'는 것, '형제를 해하는 것'(이 둘은 병렬관계이다), '신원'
 분수를 넘는다'는 것은 탈선하지 말라는 뜻이고, 형제를 해하는 것은 권리를 침범하거나 속이는 것이다. 우리말 '신원'은 원수 갚는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정계한다는 뜻이다.
7. 1-3장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칭찬과 전도자들의 복음 사역의 동기에 관한 부분이라서 다소 개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4-5장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윤리적, 교리적 권면이다. 권면할 것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런데 구체적인 첫 권면사항이 '성적인 거룩'이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예나 지금이나 건전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전한 신앙도, 건전한 국가도 세워지기 어렵다. 그럼에도 성적인 탈선을 범죄 행위라기보다는 단순히 인생을 즐기는 차원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도리어 조장하는 풍조도 있었다. 풍류, 한량, 로맨스, 영웅호걸은 으레 그러려니 하면서... 당시 헬라 사회도 마찬가지였다.
8.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는 것도 복음의 일부인가?
분명히 그렇다: 외인을 향하여 단정히 행하고, 궁핍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수 믿고 지지리도 고생한다는 말보다는 예수 믿고 정말 복을 받았구나 하는 말을 듣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백번 유리하다. 더구나 자유인은 손으로 일하는 것을 천하게 여기고 그런 일은 아래 것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헬라인들에게 있었다.
9. 자는 자(죽은 자)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만날 테니까(14) 살아있다고 죽은 자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의 재림이 자신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죽어버린 성도는 재림에 참여할 수 없지 않는가? 이런 걱정에 대한 대답이다.
10. 한국에도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수 백명이라더라. 전부 가짜다. 왜?
 초림의 예수는 초라하게 왔을지라도 재림 예수는 그렇게 오지 않는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화려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16).
11. 휴거(끌다携 들어 올리다擧) 대소동이라고 할까? '끌어올려'라는 말에서 휴거라는 표현이 나와서 영화도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사용되기도 했다. 믿는 성도만 하늘나라로 끌어올려서 데려가고, 남은 사람은?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데 남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어떤 방법으로 데려가시느냐에 그렇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까? 전자석이 모래 속의 쇠붙이를 끌어올리듯이! 어미닭이 품었더니 어떤 알은 깨어나고 어떤 알은 썩어버리듯이 저절로 구분될 것이라는 얘기가.

12. 휴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모른다. 잘 모르는 일에 온갖 관심을 다 쏟을 게 아니라 비슷한 예를 살펴보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성경에 어떤 예가 있는가?
에녹, 엘리야, 예수의 승천, 빌립의 순간 이동, 바울의 삼층천 경험 등에 비추어 상상해볼 뿐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 장

1.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말이 없단다. 밤에 도적같이 이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뜻이 될까?

평소에 준비를 잘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언제 와도 상관없고 준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때와 시기를 알려줘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2. 재림을 도적에 비유한 것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뜻이다. 그러면 재림을 잉태된 여인에게 임할 해산의 고통에 비유한 이유는 될까? 해산의 고통은 언제 올지 대략은 안다. 그러니 시기의 문제는 아니다.

재림의 필연성이다: 피하지 못하리라. 도적은 반드시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은 반드시 온다.

3.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 같이, 해산의 고통같이 임한다. 빛 가운데 거하는 이들에게는?

도적이 오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해산의 고통이 오면 아파서 울부짖어야 한다. 빛 가운데 거하는 이에게는 이런 일이 없다. 근신, 믿음, 사랑, 구원의 소망으로 마침내 구원을 얻는다.

4.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4) 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릇된 종말론자들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고 그 일자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무엇이 문제인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잘 안다고(2절) 하는데도 굳이 부정하고 다른 주장을 펴는 것은 문제가 있다.

5. 자지 말라고? 잔다는 것은 도적이 오는지,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지 모른다는 뜻이다. 그러면 자지 않고 깨어있다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8): 도적이 오는지,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지 모른다는 것은 무감각이요, 불신앙이다. 반면에 성도는 신앙 안에 거하라는 말이다.

6. 다른 이들은 술에 취해 자는 자들이다. 반면에 성도는?

전투를 준비하는 군인과 같다: 흉배를 붙이고 투구도 쓰고, 깨어 근신하는 것은 군기가 바짝 들어 있는 상태 아니겠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할지 몰라도 삶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다.

7.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인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본문에서 이 양면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보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셨다(9). 여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곧 선택하심이다. 반드시 구원을 이루신다는 확신이다. 24절도 동일하다.

성도가 해야 하는 일: 흉배를 붙이고 투구를 쓰고(8), 피자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일(11).

8. 10절의 ‘깨든지 자든지’가 무슨 뜻일까?

재림 때에 죽었든지 살았든지(4:13-18).

9. 11절의 ‘너희가 하는 것처럼’이란 표현도 쉽게 고쳐보자?

지금처럼

10. 12-13절을 요약한다면 ‘알고 귀히 여겨라’가 될 것이다. 누구를 그렇게 하라는가?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 말하자면 사역자들이다. 이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당부한다. 귀하게 여기는 말은 존경한다는 뜻이다.

11. 14-15절은 12-13절과 구분이 된다. 권면의 대상도 다르고 내용도 조금 다르다. 요약한다면?

모든 형제들을 선하게 대하라: 권계(=훈계)

12. 사람들이 뜻하는 바는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는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은 어떤가?

성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3.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전 12-14장). 성경도 사역자도 없던 시절에는 성령의 역사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디에 신경을 써야 하는가?

범사에 해야 할: 좋은 것과 악한 것을 잘 구분하라고 당부하는 것이다. 무조건 성령의 은사요, 예언(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당부이다. 목소리가 크고, 뜨거우면 뛰어들기 전에 ‘범사에 해야 할 보라’는 것이다. 참고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은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리라’는 말씀이다. 번역이 조금 과장되었다.

14. 인간의 본성을 3분법 즉 몸, 혼, 영으로 나눈 것은 그리스인들의 사고 방식이다. 아마도 이 글

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고 방식을 염두에 둔 표현일 것이다. 성경은 인간의 본성을 몸과 영(혼)으로 2분한다. 각설하고 몸, 혼, 영을 한 마디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전인격: 기록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다.

15.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라고 하는데 그냥 고개만 숙이고 인사하면 되나?

문화적 관습의 차이를 고려해야지 문자 그대로 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일점일획도 어김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곡해해서 문자에 치중하는 것은 오히려 말씀을 곡해할 위험도 크다.

16.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있어도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필요한가?

아무리 능력 있고 탁월한 지도자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설 수 없다면 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본적인 의무다.

17. 편지를 보내면서 모든 형제에게 큰 소리를 읽어주라고 명령하다니? 이게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뜻이다. 돌려보든가 게시판에 게시해두면 되지 꼭 큰 소리를 읽어줘야 하나?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았을 것이며, 특히 공적인 모임에서 읽어주라는 뜻일 수도 있다.